

만민뉴스

제1000호 2023년 8월 2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1000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민뉴스
1987년 5월 17일부터 만민의 역사를 담아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만민뉴스'가 지령 1000호를 맞았습니다.

1987년 5월 17일, 월간 '만민중앙소식'으로 창간해 정기 구독자의 증가와 교세의 폭발적 확장에 힘입어
1991년 10월 교회 창립 9주년을 기점으로 격주 신문으로 발행했으며,
2009년 10월 11일 지령 400호부터는 제호를 '만민뉴스'로 변경하고 주간 신문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1991년 1월에는 영문판을 시작으로 다국어 신문을 발간했으며, 2012년 11월부터는 인터넷 만민뉴스(www.manminnews.com)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어, 우르두어, 싱할리어, 힌디어 등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히브리서 11:4~7)

주 안에서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실상으로 얻기까지는 반드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실상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기만 하면 믿음의 결과인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 믿음으로 응답받은 믿음의 선진 중에 아벨과 에녹,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1.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선진들

1)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땅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칙을 철저히 깨우쳤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사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누누이 알려 주었지요(히 9:22).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아벨의 형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변개하여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땅의 소산, 곧 농작물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피의 제사, 곧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 기회를 엿보다 죽이고 말았지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

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예배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롬 12:1 ; 요 4:24).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나 찬양을 해도 그저 입술로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잡념과 졸음에 빠집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요(말 3:8).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오전이나 오후 예배만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처럼 자기 임의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길입니다(신 28장).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실 만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들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365세에 들림 받았으니 65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닦아 변화된 것입니다. 마침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과 빛, 사랑 등 진리로만 마음에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에녹은 벗처럼 하나님과 동행

하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가까이 두고자 그가 수명이 다하기 전에 산 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지요.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며, 죄를 다 버릴 수 있을까?” 말하지만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벧전 1:15 ; 마 5:48).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갈 수 있지요(요 14:21). 이처럼 말씀대로 행할 때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믿음을 좇아 의의 후사가 된 ‘노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경작 받기 시작한 지 약 1,5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며 근심하셨지요. 결국 물로 심판하기로 정하신 뒤 노아에게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그는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새롭게 만들려고 계획하셨지요. 물로 심판하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서 그들로 자손을 번성케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를 보전케 할 거대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심판에 대비할 것을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비도 오지 않는데 큰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면서까지 그들이 돌이켜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 죽고 말았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행해 구원받았습니다(창 7:23).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r> <td>다니엘 철야 기도회</td> <td>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td> </tr> <tr> <td>새벽예배</td> <td>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td> </tr> </table> <p>※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겨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며 핍박에 못 이겨 아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불이익이 오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서 기도를 쉬거나 사명을 소홀히 하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처럼 아무리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 해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두루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이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공식에 대입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2.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1)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식과 이론,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참임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어도 믿지 못합니다. 배운 지식이나 가치관 등이 단단하게 굳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과 이론을 깨뜨려야 생각의 문을 열 수 있고, 나아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 자존심, 고집, 거짓 등이 있으면 자기 생각과 이론을 깨뜨리기 어렵고, 마음의 악이 이론과 생각을 동원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내 생각과 지식이 옳은지 궁구하며 열심히 선한 행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2)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롬 10:17) 하셨으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식 삼

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식 삼고 있을 때 범사에 험통한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사 1:19).

3)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으로 쌓았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믿음입니다(약 2:22, 26).

따라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뷰

“은혜와 감동의 ‘2023 만민 하계수련회’, 행복했습니다!”

개어라 이스라엘 교회/ 실로미, 미리암 목사



‘2023 만민 하계수련회’ 소식을 듣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비록 저희는 온라인으로 참석했지만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보면서 승리의 영광을 체험한 성도들의 얼굴에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희망과 기쁨을 보았고, 그 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있는 위대한 승리자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수련회에 동참해 그 위대한 축복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 장정연 목사



스페인어권과 중남미 성도님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본교회 주일 예배에 항상 함께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수련회도 190여 곳에서 유튜브와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했는데, 많은 분이 치료받아 간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본교회를 사모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있는 곳에서 충만하게 달려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민교회/ 소피아 우 집사



캠프파이어를 통해 매우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만민의 양 떼임과 새 예루살렘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 충만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 같았고, 저도 힘차게 달려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더욱 아름다운 만민의 찬양 문화와 놀라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몰도바 만민교회/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목사



저희는 시차 때문에 수련회 생방송 유튜브 영상을 녹화해 저녁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며 수련회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여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듯한 감동을 받았고, 장로님들의 멋진 특송도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류보프 트르슈 성도님이 만성 관절염을 치료받아 그 자리에서 간증하므로 은혜를 더했습니다.

필리핀 다바오 만민교회/ 김은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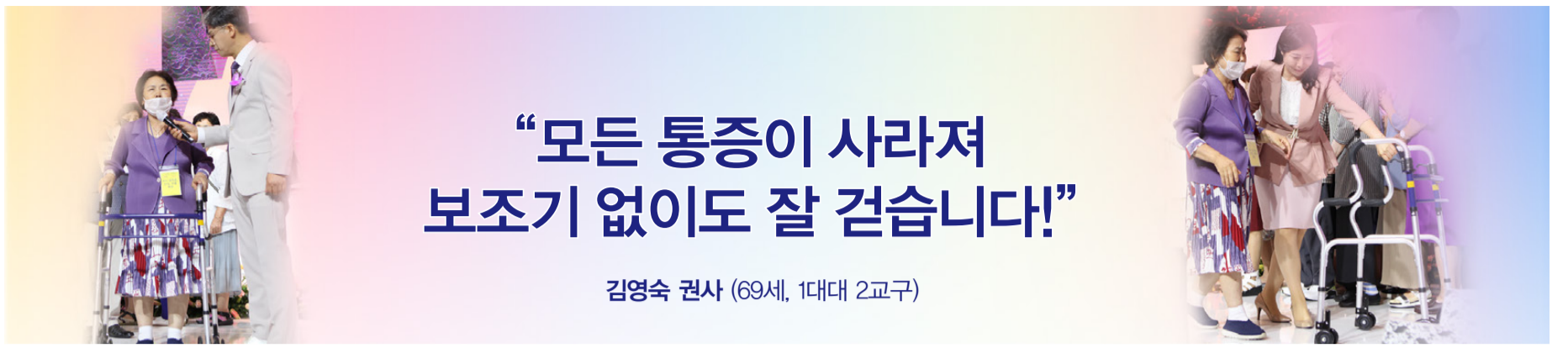


도착 예배를 드릴 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통화자복의 은혜가 임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며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다바오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귀한 성결의 복음을 통해 죄를 버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많았던 성도님이 혈기를 버리고 온유해져 가족 복음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볼 때 성결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더욱더 느낍니다.

호주 시드니 만민교회/ 신디아 맥밀란 집사



수련회는 매우 훌륭했고, 만민의 양 떼로 함께하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캠프파이어 때 이수진 목사님의 찬양 인도는 매우 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모습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권능’ 찬양을 불러 좋았는데, 이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이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져 보조기 없이도 잘 걷습니다!”

김영숙 권사 (69세, 1대대 2교구)

저는 오랜 기간 허리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28일, 옥상에 있는 화초와 채소에 물을 주고 내려오다가 신발이 젖어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그 순간 허리와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119에 연락해 얼마 후 도착한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조치를 받기는 하였지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뼈가 양쪽으로 통겨져 나와 신경을 건드리니 허리는 물론 오른쪽 다리와 발끝까지 통증이 밀려오고 발가락조차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순간도 참기 어려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기에 의지해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병원에서 2주 이상 입원이 어려우니 허리협착증 치료를 위해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있을 하계수련회에서 치료받고자 마음먹고 7월 10일에 퇴원하였습니다.

때마침 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 중인 터라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했고,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막상 하계수련회가 다가오니 주변에서는 보조기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제가 염려되어 수련회 참석을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수련회에 꼭 참석해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7월 31일, 저는 수련회 참석을 위해 딸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보조기에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를 지켜보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치료해 주실까?’, ‘버스를 타면 치료해 주실까?’ 하며 매 순간 언제 치료해 주실지 기대하였지요.

마침내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 기대와 설렘으로 도착 예배에 참석하였더니 시종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강사 이복님 원장님(만민기도원)께서 전

체 기도를 해 주실 때는 온몸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 같았지요. 저는 치료받은 것을 확신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더니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기관 식구들과 딸은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소리치며 기뻐하던지요.

그날 저녁,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 및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시작 전부터 배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주먹만 한 시커먼 핏덩어리 같은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렇게 세 차례 화장실에 다녀온 뒤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온몸이 가볍게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저는 평안한 가운데 교육 말씀에 은혜받고 기도 받을 수 있었으며, 보조기 없이 단에 올라가 치료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가 이제 잘 들립니다!”

김연분 성도 (66세, 중국 2교구)

중국에서 태어난 저는 세 살 때 2층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제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 들러 술값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곤 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2009년에는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오른쪽 귀에 난청이 생겼고 어지럼증으로 근무 중에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이 있어 가슴이 답답했고 조금만 큰소리가 나면 놀라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밤에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니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지요. 2020년에는 오른쪽 귀 난청을 해결하기 위해 달팽이관 수술을 했지만, 오히려 아예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9월, 새롭게 이사한 곳에서 어떤 분이 제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착한 마음을 지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웃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어 10월에 등록해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가 속한 교구의 구역장님이었고, 주일 성수와 온전한 심일조 등



하나님 말씀들을 알려 주시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니 신앙생활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2023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구역장님은 물론 구역 식구들이 제게 수련회에 참석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음을 심어 주어서 저는 희망을 품고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수련회 첫날인 7월 31일 저녁, ‘교육 및 은사 집회’ 시 당회장 직무 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였습니다. “청력저하, 난청, 이명, 중이염...” 하며 병명을 하나하나 부르시는데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원하였습니다.

순간 저는 치료받았다는 생각에 오른쪽 귀를 당겨 소리를 들어보니 아주 잘 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병으로 항상 답답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더니 금세 상태해졌지요. 할렐루야!

그날 밤, 참으로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하계수련회 이후 저는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